

투데이 칼럼

“공무원의 직무유기 군민에게 돌아간다”

전 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 기초자치단체 공약 701개 가운데 11.4%(80개)가 완료되고 20%(140개)가 이행 후 계속 추진돼 총 31.4%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 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15년 목표달성, 주민·웹 소통 일치도를 평가해 5단계(SA-A-B-C-D)로 등급을 매겼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완주, 남원, 김제, 진안군이 65점을 넘어 최우수(SA)등급을 받았고 전주, 군산, 순창, 고창군이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부안군이 홈페이지에 공약이행 결과를 자세히 공개하고 있으나 입법 및 재정 정보 등을 제시하지 못했고, 2차 소명 요청에도 응대하지 않아 지방의회 승인이나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주민 직접 승인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이 민선 6기 김종규 부안군수의 공약 이행 실적이 전라북도 14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공약이행 등에 있어 전국의 우수 사례로 평가 받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평가에서는 최하위의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2차 소명 요청에도 부안군 기획실장은 물론 담당, 담당자가 직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전라북도 최하위로 추락하였다.

특히 실과 소장 주무계장들이 참

석한 간부회의 석상에서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철저하게 챙겨 대처하라고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기획실장 이하 담당 및 담당자 누구도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도 못하는 부안군의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실수로 해석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공직기강해가도 도를 넘어 한국매니페스토가 요청한 자료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데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공약이행 등

에 있어 전국의 우수 사례로 평가 받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평가에서는 최하위의 결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D등급 지역의 행정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대부분 D등급을 맞은 지자체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곳이거나 인허가가 집중 되는 곳이었다”면서 특히 “부패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로 지적 되는 것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이행에서조차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부안군은 민선 6기 부안군이 소통·공감·동행행정과 서비스·마인드·창조행정 등 행정 3원칙으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건설에 박차를 가해 지난해 최우수등급(SA)을 받았다.



이옥수

지방부 부안주재 국장

독자제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위한 수칙 이렇게

최근 더위를 피해 가족들과 함께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물놀이임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성인들까지도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키면 될 것이다.

첫째로 물놀이를 하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물놀이에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슴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시고 물놀이를 하도록 한다.

둘째,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반드시 장비를 챙기도록 한다.

물놀이를 하는 도중에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등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튜브나 구명조끼를 챙기도록 한다.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할 경우에는 보다 신경써야 할 것이다.

셋째,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한다.

물놀이를 하기 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나 현지에 있는 여름파출소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는 등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은 삼가고 장시간 계속하여 수영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혼자서 호수나 계곡에서 수영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사람이 물에 빠져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주위에 소리쳐 상황을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있더라도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에서는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고 아울러 112순찰차에도 하절기 동안 장비를 탑재 운행하고 있다.

반국선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장

독자제언

안전한 등산 적절한 대처로 사고예방을

여름철 뜨거운 날씨와 이어지는 장마 비줄기가 계속되고 있다.

매서운 비바람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을 찾는 등산 마니아들이 많은데 장마철 등산은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준비물과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안전한 등산이 되기 위해서는 산에 오를 때 기본적인 산행 준비물인 적절한 복장과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옷은 두꺼운 옷을 하나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고 일반 티셔츠보다 기능성 내의나 등산 전용 옷을 여러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등산화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가벼우며 비탄이 잘 통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등산복이나 스틱 등 기본적인 산행 장비를 갖추어야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장비로 보호가 가능하다.

산행을 준비할 때 겸손한 태도는 특히 중요하다.

산행 전에는 최상의 컨디션을 위

해 음주를 금하고 숙면을 취하고 등산 코스를 선택할 때에도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이 오를 수 있는 난이도인지 꼼꼼히 따져 산행 시간을 충분히 계산해 봐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에서는 각 국립공원별로 '코스별 난이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고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혼자 오르는 것보다 3명 이상의 일행과 함께 산을 오르는 것도 필요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발을 담그는 계곡물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

산에 흐르는 계곡은 장마철 빗줄기가 몰아친다면 급격히 불어난 계곡물로 조난 상황이 발생하여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계곡에 들어갈 때에는 수심과 물이 흘러가는 속도, 소용돌이 여부, 비가 내리는 등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물줄기가 허가된 안전한 곳만 들어가는 것이 좋다.

박지현 전주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 순경

사설

전북도, 기재부의 홀대에 할말 해라

전북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정부 부처들로부터 계속 홀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 기분이 어떤지 묻고 싶다. 이번에 또다시 불쾌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한 바 있거니와 전북도는 제 몫을 행하는 데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겠다. 이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향토의 발전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른 고장은 내일이 발전하고 있는데 전북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유감이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가 분발해야겠다.

전북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 몫을 행하는 역척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향토의 발전상이 마땅치 않다고 했거니와 발전 내용의 면면들이 초라하다. 정부 부처로부터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암전하게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러는 것인지 답답한 세월이다. 기재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여기 불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전북의 뒷으로 배정된 금액은 9452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여기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스럽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전국 규모액을 보면 10조원에 이르는데다 경

북과 비교해 겨우 60% 수준인 까닭이다.

전북도는 기재부의 그같은 불평등한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같은 이의 제기가 없다면 앞으로 다른 부처들도 전북을 우습게 볼게 뻔하다.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적은 금액 배정을 당연시 할 거라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이제 평가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너무 암전했던 탓에 전북도와 도민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도민들이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있거니와 우리의 몫으로 약속된 토지공사를 경남에 빼앗긴 것은 전북도가 제 몫을 챙기지 못한 탓이다. 그게 오래 전의 일이라고 해도 전북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에 거듭 말하거니와 향토 발전을 위해서는 제 몫을 행하고 지키는 역척스러움이 필요하다. 전북 발전을 이끌 이쪽의 청사진이 정부 쪽에 막혀있지 않는 세월이 계속되고 터에 당연한 행여 할 몫마저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푸대접을 아쁘게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제 몫을 행하는데 열정을 가져야겠다.

직업교육은 실무에 맞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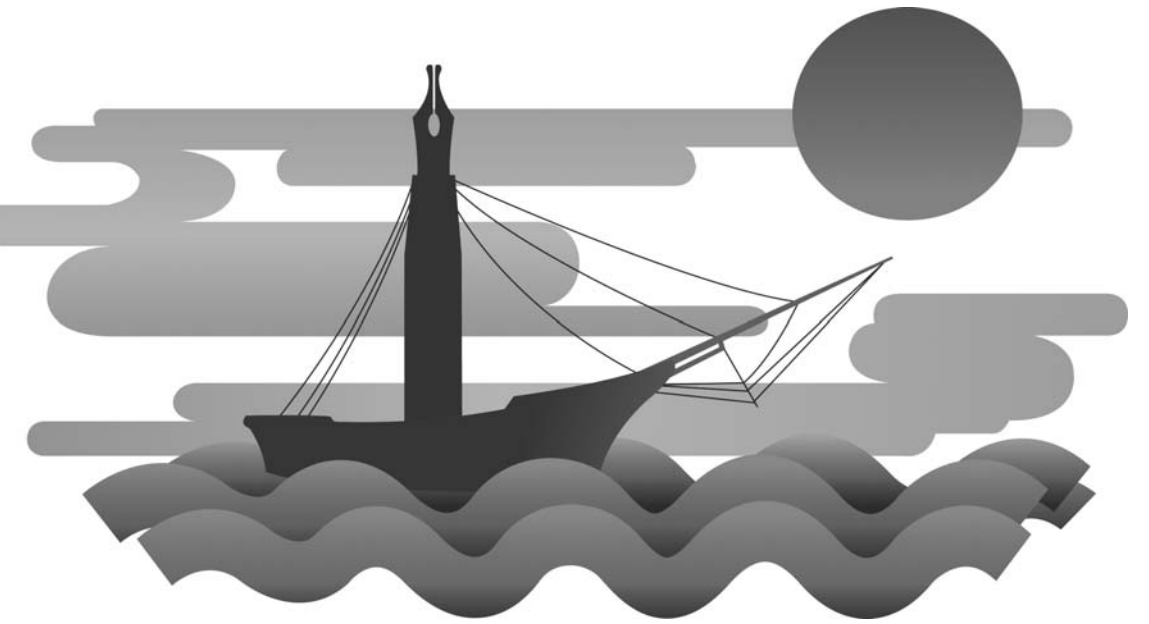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절실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일자리아다. 매년 새로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고용현실이 각박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학교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이라면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북 지역에는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게 한 두 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 문제다 크다.

그런데 여기 이 시점에서 짚어볼 것이 있다.전북 지역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이상한 것이 있어서 말이다. 예전에 전북도의 발표와 고용부의 발표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전북도가 취업률이 올랐다고 말했을 때 고용부의 발표는 그게 아니었다. 고용부 측은 전북 지역의 취업 현실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고용률이 전국 최저라는 것이었다.

본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그 희망사항이 현실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전북도가 일자리를 늘리려 애쓰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게 유익이 적다니

문제이다. 전북도의 노력이 온전한 청년의 대상이 못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일 것이다. 왜 그런지 전북도는 생각해야 한다. 도내 일자리를 위한 청년 직업교육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직업 교육 시스템이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그것은 얼핏 생각할 때 취업 희망자들의 눈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으나 달리 생각하면 직업교육이 형식적이었던 이야기도 되기 때문이다.

취업난이 극심한 이때, 전북도 관계자들은 잘 판단해야 한다. 직업 교육이 실무에 맞지 않으면 곤란하다. 직업교육은 취업 현장과 맞아야한다. 이론 교육에만 치우치면 아무 이득이 없다. 직업교육이 기대한 만큼 효용을 얻고 있지 않다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직업교육이 현장 실무에 맞게 하는 가운데 청년 취업 문제를 자기 자녀의 일처럼 마음 써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